



하계상 | 삼육대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방법의 진술

창세기 5장 1-3절은 대부분, 본질적으로 창세기 1장 26-28절의 반향(反響, echo)임²⁾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한글 성경 역본들은 창세기 5장 1-3절을 미흡하게 번역해 놓았거나 그 번역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한글 성경 역본들에서 창세기 5

- 1) 이 논문은 제99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김동혁 박사의 논찬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하면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2) 창세기 5장 1-2절은 그 구문과 용어에 있어서 창세기 2:4의 인유(引喻, allusion)이기도 하다. 참조 Umberto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 From Adam to Noah, Genesis 1-6:8*, trans. Israel Abraham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1), 274-275;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vol. 1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 126; Martin Kessler and Karel Deurloo, *A Commentary on Genesis: The Book of Beginnings* (Mahwah, NJ: Paulist Press, 2004), 73.

장 1-3절의 번역을 바람직하게 고치고 그 번역에 일관성을 부여하며, 그 과정에서 창세기 1장 26상, 27절에 대한 한글 성경 역본들의 번역에도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 본 논문의 첫째 목표이다. 따라서 논자는 히브리어 구약 본문에 보다 충실한 번역을 위한 지침들 중에서 히브리 성경의 문학적인 특성을 번역에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³⁾과 번역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역본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의 히브리 본문에 비추어 특히 히브리어 명사 첼렘(חֵלֶם, “형상, image”)과 더무트(דְמוּת, “모양, likeness”),⁵⁾ 히브리어 전치사 베티(בְּ, “in”)와 키(כִּי, “after, according to”),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 아싸(עָשָׂה, “만들다, make”)와 바라(בָּרָא, “창조하다, create”)에 대한 번역과 그 번역의 일관성 여부에 주목하면서 연

-
- 3) 참조, 김정우,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2003년 1월), 7-40; “히브리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19(2006년 10월), 7-28;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제 2부: 사례들”, 『성경원문연구』 20(2007년 4월), 7-29.
 - 4) 참조,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연구』 28(2011년 4월), 170-203.
 - 5) “하나님의 형상/모양”이라는 주제에 대한 해석사로 문희석, 『창조신학』 (서울: 보이스사, 1976), 155-164,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MN: Augsburg Pub. House, 1984), 147-158, 그리고 Gunnlaugur A. Jónsson, *The Image of God: Genesis 1:26-28 in a Century of Old Testament Research*, Coniectanea Biblica, Old Testament Series 26 (Lund: Almqvist & Wiksell, 1988)을 참조하라. 그 주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특히 Jónsson, *The Image of God*, Raymond C. Van Leeuwen, “Form, Image”, *NIDOTTE* 4, 643-648, Kenneth A. Mathews, *Genesis 1-11*, NAC, vol. 1A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164-172, C. John Collins,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mpany, 2006), 61-67, Terence E. Fretheim, “Image of God”, *NIDB* 3, 18-21, C. L. Crouch, “Genesis 1:26-7 as a Statement of Humanity’s Divine Parentage”, *JTS*, NS 61/1 (April 2010): 1-15, John F. Kilner, “Humanity in God’s Image: Is the Image Really Damaged?”, *JETS* 53/3 (September 2010): 601-617, 그리고 Paul Sands, “The *Imago Dei* as Vocation”, *EQ* 82/1 (2010): 28-41을 참조하라. 이 주제에 대한 논의 자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구가 진행될 것이다.⁶⁾ 그리고 창세기 1장 26상, 27절⁷⁾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⁸⁾’을 고려하면서 창세기 5장 1-3절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둘째 목표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공식적/문학적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5장 1-3절의 최종 형태의 본문을 가지고 진행하며, 그 본문들에 대한 상세한 주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창세기 1장 26상, 27절의 번역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순 한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6상, 27절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개역한글판』

창세기 1장 26상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 6) 「구약논단」에서 어휘 연구 및 번역 문제를 다룬 논문들로는 남대극, “창세기 1장의 번역과 의미”, 「구약논단」 2집(1996년 12월), 7-23, 김진규, “참언에 나타난 ‘마스킬’의 번역의 문제”, 「구약논단」 43집(2012년 3월), 60-81, 그리고 하계상,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아롬(אֵרוֹם), 아롬(אֵרוֹם), 예롬(אֵירוֹם): 그 의미들과 번역들, 그리고 그 절묘한 언어유희의 의도”, 「구약논단」 50집(2013년 12월), 144-171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인 자료들에 나오는 한 용어의 용례를 통해 그 용어의 시대적 기원과 다양한 의미 등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소형근, “히브리어 ‘페하’(פֶּה)에 대한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 자료를 연구”, 「구약논단」 50집(2013년 12월), 266-289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 7)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가 창세기 5장 2절하에 반영되어 있지만, 이 논문은 두 히브리어 동사(הָרַץ וְרָצַח)와 두 히브리어 명사(רֶגֶל וְרֵגֶל)의 용례와 번역의 일관성에 주목하는 관계로 창세기 1장 28절은 제외되었다. 같은 이유로 창세기 1장 26하도 이 논문에서 제외되었다. 본문 단위 설정을 문제 삼아 창세기 1장 26-28절 전체를 논의에서 다루도록 요구할 경우 창세기 5장 1-5절도 그 전체를 본문 단위로 다루어야 하므로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이 많고 한글 성경 역본들의 비교 부분이 장황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찰할 본문을 창세기 1장 26상절, 27과 5:1-3으로 제한했다.
- 8) 참조, Henry Alford, *The Book of Genesis and Part of the Book of Exodus: A Revised Version, with Marginal References, and an Explanatory Commentary* (London: Alexander Strahan and Co., 1872; Reprint [Minneapolis, MN: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79]), 27: “이 말[창세기 5:3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연속을 암시하느냐 아니면 불연속을 암시하느냐?” 논자는 이 자료를 접하기 전에 이미 독립적으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표현을 본 논문에 사용하고 있었음을 밝혀둔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표준』

창세기 1장 26상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
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개역개정』

창세기 1장 26상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새번역』⁹⁾

창세기 1장 26상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
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공동번역개정』¹⁰⁾

9) 대한성서공회는 2004년 9월부터 『표준새번역개정판』의 공식명칭을 『새번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10) 이곳과 창세기 5장 1-3절에서 『공동번역』은 “지어 내다”가 『공동번역개정』에서 “지어내다”로 수정된 것 외에는 동일하므로 제외한다. 그리고 민영진은 자신의 저서 『국역성서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84), 174에서 “공동번역 성서는 무엇보다도 공동번역 자체가 선택한 번역 원칙에 그것 자체가 얼마나 충실 하였는가 하는 것으로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 전달에 역점을 둔 번역인 만큼,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징으로 지적될 수는 있어도 결함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공동번역』이나 『공동번역개정』은 축자적 번역이나 형식적 일치를 피하고 ‘내용 동등성 번역의 원리’를

창세기 1장 26상절,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자!’”

창세기 1장 27절,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
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위의 한글 성경 역본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개역개정』은 『개역한글판』과 거의 차이가 없고, 『표준』과 『새번역』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준』과 『새번역』은 특히 창세기 1:27에서 『개역한글판』 및 『개역개정』, 그리고 『공동번역개정』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 그리고 『공동번역개정』의 번역은 간략하게 요약한 것 같지만, 『표준』과 『새번역』의 번역은 부연해서 풀 것 같다. 둘째,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에는 두 번 사용되어 있으나, 『표준』과 『새번역』에는 세 번 사용되어 있다. 셋째, 『공동번역개정』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를 “우리 모습을 닮은”으로 간략하게 번역했으며,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지어내다”로 번역하여 세 번 사용했다.

그런데 아래의 BHS의 히브리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느 한글 성경 역본들의 번역이 보다 더 정확한 것일까? 그리고 이 한글 성경 역본들의 번역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가?

וַיֹּאמֶר אֱלֹהִים נַעֲשֶׂה אָדָם בְּצַלְמֵנוּ כִּדְמוּתֵנוּ	창세기 1장 26상절
וַיִּבְרָא אֱלֹהִים אֶת־הָאָדָם בְּצַלְמוֹ	창세기 1장 27상절
בְּצֶלֶם אֱלֹהִים בָּרָא אֹתוֹ	창세기 1장 27중절
זָכָר וּנְקֵבָה בָּרָא אֹתָם	창세기 1장 27하절

택했기 때문에 ‘형식 일치 번역의 원리’를 근거로 비판한 것은 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형식과 내용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본 논문이 밝히게 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브리 본문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 주어가 될 수 있는, 창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히브리어 동사 바라(אָבַר, “창조하다”)가 세 번 사용되었으므로¹¹⁾, 무엇보다도 그 점에 있어서 『표준』과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개정』은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공동번역개정』은 바라(אָבַר)에 대한 번역을 “지어내다”로 하기보다는 “창조하다”로 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표준』과 『새번역』은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이 …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식으로 번역함으로써 창세기 1장 27중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와 창세기 1장 27상절의 “남자와 여자로”의 평행대구를 살리는 편이 바람직했을 것이다.¹²⁾ 왜냐하면, 히브리 본문에서 창세기 1장 27중절은 창세기 1장 27상절을 사실상 반복하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서로 절묘한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으며,¹³⁾ 그 교차대구는 창세기 1장 27중절이 창세기 1장 27하절과 평행대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참조 창 5:1하-2상). 게다가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비록 바로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28상절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생식(生殖, procreation)의 축복과 명령을

11) 창세기 1장 1절-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는 “바라(אָבַר)”를 총 여섯 번 사용했는데(창 1:1, 21, 27[3x]; 2:3), 그 절반인 세 번을 인간의 창조와 관련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의 독특성과 존엄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Herbert Carl Leupold, *Exposition of Genesis: Volume I, Chapters 1-19*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6; Copyright by The Wartburg Press, 1942), 93;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OTL, rev. ed.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1973), 48-49, 57;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2), 24, 32-33; Wenham, 14; Kessler and Deurloo, 15, 29.

12) 예를 들면, LXX, Vul, KJV, JPS, RSV, NJB, NIV, NKJ, NRS, NAS, ESV, NET, TOB, ZUR.

13) 참조, Phyllis 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78), 16; Thomas A. Keiser, “The Divine Plural: A Literary-Contextual Argument for Plurality in the Godhead”, *JSOT* 34/2(2009): 136-137. 히브리어 본문의 한 절 안에 혹은 인접한 두 절 사이에 존재하는 교차대구, 심지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절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차대구조차도 그것을 완전히 살려서 한글로 번역하기가 어법상 결코 쉽지 않다.

위한 것일지라도,¹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깊은 관련이 있음¹⁵⁾을 암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평행대구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상, 27절에서 세 번 사용된 켈렘(כְּצַד, “형상”)은 모두 전치사 베크(בְּ, “in”)¹⁶⁾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 그리고 『표준』과 『새번역』 모두 창세기 1장 26상절에서는 “형상을 따라(서)”라고 번역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형상대로”라고 번역하여 그 번역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모두 “형상대로”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상절에서 한 번 사용된 더무트(דְמוּת, “모양”)는 전치사 켜(כְּ, “after, according to”)¹⁷⁾를 취하고 있으므로 “모양대로”보다는 오히려 “모양을 따라서”라고 번역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동번역개정』은 창세기 1장 26상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를 “우리 모습을 닮은”으로 간략하게 의역하여 “형상”과 “모양”을 “모습”으로 통합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형상”도 두 번 다 “모습”으로 의역하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6상, 27절은, 히브리 본문은 그 형식과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내용 동등성 번역의 원리’와 ‘형식 일치 번역의 원리’를 최대한 반영하여¹⁸⁾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창세기 1장 26상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14) 참조, Wenham, 33, 126;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139; Kessler and Deurloo, 32–33.

15) Tribble, 15–23; Keiser, “The Divine Plural”, 136–138. 논자는 이 자료들을 접하기 전에 독자적으로 이미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지만, 다른 학자들(John Peter Lange, Karl Barth, Phyllis Tribble, Martin Kessler and Karel Deurloo 등)도 일찍이 다양한 면으로 그것에 주목했음을 알게 되었다.

16) 참조, KJV, YLT, JPS, RSV, NJB, NIV, NKJ, NRS, NAS, ESV 등.

17) 윗글

18) 참조, 각주 10.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3. 창세기 5장 1-3절의 번역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순 한글 성경에서 창세기 5:1-3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개역한글판』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일백 삼십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표준』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5장 2절,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백서른 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개역개정』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새번역』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5장 2절,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백서른 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공동번역개정』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시던 날,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그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주셨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위의 한글 성경 역본들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개역한글판』의 “하나님의 형상”을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경했으나,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은 둘 다 “만드시되”가 아니라 “지으시되”라고 했다. 『표준』과 『새번역』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모두 “하나님

의 형상”으로 번역했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표준』과 『새번역』은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라고 번역했다. 『공동번역개정』은 창세기 5장 1-3절에서 관련 부분들을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일관성 있게 번역했다.

그런데 아래의 BHS의 히브리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이 한글 성경 역본들의 번역 중에 어느 번역이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일까? 그리고 이 한글 성경 역본들의 번역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가?

זֶה סֵפֶר תּוֹלְדֹת אָדָם בְּיוֹם בְּרָא אֱלֹהִים אָדָם בְּדְמוּת אֱלֹהִים עָשָׂה אֹתוֹ

창세기 5장 1절

וַיְבָרֶךְ אֹתָם וַיִּבְרָךְ אֹתָם וַיִּקְרָא אֶת־שְׁמֵם אָדָם בְּיוֹם הַבְּרָאָם

창세기 5장 2절

וַיְהִי אָדָם שְׁלֹשִׁים וּמֵאֵת שָׁנָה וַיֻּלְּד בְּדְמוּתוֹ כְּצַלְמוֹ וַיִּקְרָא אֶת־שְׁמוֹ שֵׁת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 1절에서 더무트(דְמוּת, “모양”)가 사용되었으므로 『개역개정』이 『개역한글판』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수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의 “지으시되”는 “만드시되”라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으시되”라는 번역은, 히브리어 동사 아싸(עָשָׂה, “만들다”)가 아니라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 그리고 『표준』과 『새번역』에서 “짓다”라고 잘못 번역된 창세기 2장 7, 8절의 히브리어 동사 야차르(יָצַר, “빚다”[shape])¹⁹⁾를 연상시키며,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의 번역에 일관성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은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바라(בְּרָא)의 기본형(Qal)과 대조시켜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그 수동형(Niphal)을 살려

19) 『공동』과 『공동개정』에서는 “빚어 만들다”로 번역되어 있다.

번역했으나, 『표준』과 『새번역』은 능동형으로 바꾸어 번역함으로써 문학적 미묘한 변이를 반영시키지 못했고,²⁰⁾ 『공동번역개정』은 그 부분을 완전히 생략해버렸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번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번역개정』은 바라(אֱלֹהִים)에 대한 번역을 “지어내다”가 아니라 “창조하다”로 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표준』과 『새번역』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히브리 본문의 더무트(דְמוּת, “모양”)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창세기 5장 3절에서 『표준』과 『새번역』의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이라는 번역은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고쳐야 히브리 본문의 어순에 맞고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도 일관성 있는 번역이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창세기 5장 1, 3절에서 보듯이, 히브리어 명사 첼렘(צֶלֶם, “형상”)과 더무트(דְמוּת, “모양”)처럼 히브리어 전치사 베티(בְּ)와 키(כִּי)도 상호 교환이 가능하지만,²¹⁾ 창세기 1장 26상, 27절에서는 첼렘(צֶלֶם, “형상”)이 전치사 베티(בְּ)를 취하고 더무트(דְמוּת, “모양”)는 전치사 키(כִּי)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창세기 5장 1, 3절에서는 더무트(דְמוּת, “모양”)가 전치사 베티(בְּ)를 취하고 첼렘(צֶלֶם, “형상”)은 키(כִּי)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창세기 1장 26상절과 비교하면 창세기 5장 3절은 히브리어 명사의 순서는 바뀌어 더무트(דְמוּת, “모양”) 다음에 첼렘(צֶלֶם, “형상”)이 나오지만 전치사의 순서는

20) 원문의 묘미보다 수동문을 좀처럼 쓰지 않는 우리말의 특성을 더 중시한 결과로 원문의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번역자들이 보았을 수도 있다.

21) Leupold, 88–89, 234–235; C. F. Keil and F. Delitzsch, *The Pentateuch*, trans. James Mart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Reprinte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 Co., 1983), 1:63; Regin Prenter, *Creation and Redemption*, trans. Theodor I. Jensen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67), 81; Porteous, “Image of God”, 683; von Rad, 57–59; Charles Feinberg, “The Image of God”, *BibSac* 129 (1972): 237; Westermann, 145–146; Wenham, 28–29, 127; Viggo Norskov Olsen, *Man, the Image of God: The Divine Design—the Human Distortion*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 Assn., 1988), 28;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134–137; H. Wildberger, “דְמוּת *dmh* to be like”, *TLOT* 1, 1082; F. J. Stendebach, “צֶלֶם *šelem*”, *TDOT* 12, 393–394; Mathews, 166–167; Collins, 65–66; Sands, “The *Imago Dei* as Vocation”, 29–30.

동일하여 베틀(בֵּטֶל) 다음에 커(כֹּרֶךְ)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상절의 번역과 일관성 있게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창세기 5장 1-3절은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4. 창세기 5장 1-3절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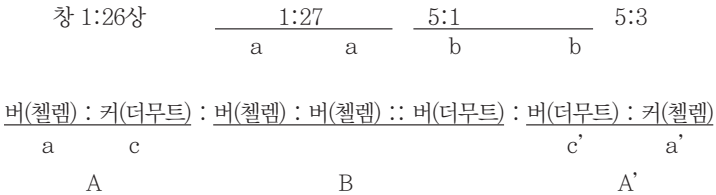
창세기 5장 1-3절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5장 1-3절이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갖는 밀접한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히브리어 명사 쉘렘(שֵׁלֶם, “형상”)과 더무트(תְּמוּנָה, “모양”)는 창세기 1장 26상, 27절에서는 “형상”, “모양”, “형상”, “형상” 순으로, 그리고 창세기 5장 1-3절에서는 “모양”, “모양”, “형상” 순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들의 사용에서 볼 때,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창세기 5장 1-3절은 평행대구 및 교차대구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다.

“형상” : “모양” :: “형상” : “형상” :: “모양” : “모양” : “형상”
 a b a' b'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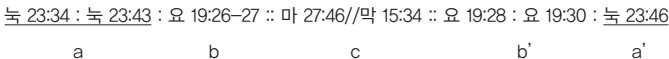
창세기 1장 26절상에서 “형상”과 “모양”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사용한 후 창세기 1장 27절에서 “형상”을 두 번 연속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과 수적인 균형(numerical balance)을 맞추기 위해서 창세기 5장 1-3절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한 번만 사용된 “모양”을 두 번 연속으로 언급한 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모양”과 평행으로 사용된 “형상”을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²²⁾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창세기 5장 1-3절에서 베클렘(בְּרֵאשִׁית)과 키(כִּי)라는 두 히브리어 전치사가 켈렘(כְּלֵם, “형상”)과 더무트(דְּמוּת, “모양”)라는 두 히브리어 명사와 이루는 결합도 아래와 같이 절묘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 구조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음역만 사용하고 명사들은 괄호 안에 넣은 후 밑줄과 윗줄을 그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5장 1, 3상절의 경우 전치사들은 모두 베클(בְּ)로 동일하지만 명사들은 켈렘(כְּלֵם, “형상”)이 두 번 이어 나오고, 더무

22) 신약에서의 한 예는 논자가 밝혀낸 예수의 가상칠언(架上七言)의 구조이다. 가상칠언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사복음서 및 가상칠언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는 문학적인 구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앞부분은 누가복음에 두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는 요한복음에 두 말씀을 언급하고 누가복음에 한 말씀을 언급함으로써 수적 균형을 맞추어 절묘한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그 교차대구적 중심에 의미심장한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위치하고 있다.

트(מוֹרֵה, “모양”)가 두 번 이어 나와서 a:a::b:b의 독특한 형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상절과 창세기 5장 3절은 전치사들의 순서는 같으나 명사들의 순서가 바뀌어 a:c::c':a' 및 A::B::A'의 절묘한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다.

창세기 5장 1, 3절이 창세기 1장 26상, 27절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문예적인 기법을 사용했음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히브리어 동사 바라(בָּרָא, “창조하다”)와 아싸(אָצַע, “만들다”)가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창세기 5장 1-2절에서 각각 같은 횟수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전체적으로는 불완전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완전한 교차대구도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들다” : “창조하다” : “창조하다” : “창조하다” :: “창조하다” : “만들다” :
 a b b' b a
“창조하다” : “창조하다”
 b'

이 특별한 구조는, 두 명사(אֱלֹהִים과 מוֹרֵה)가 이루고 있는 구조, 그리고 그 두 명사와 두 전치사(בְּ와 בִּ)의 결합이 이루고 있는 구조와 더불어 창세기 5장 1-3절 단순히 창세기 1장 26-28절의 반향이 아니라 그 본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독특하면서도 절묘한 구조들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5장 1-3절이 창세기 1장 26-28절과 갖는 밀접한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빅터 해밀턴(Victor P. Hamilt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세대에 걸친 전수(傳授)와

각 새 세대의 장자에만 관심이 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이 전수에 상처를 남겼다는 증거는 없다. 이 말은 창세기 5장의 저자가 인간의 타락을 모르고 있거나 인간의 타락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거나 인간의 타락이 그의 신학적 체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 창세기 3장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족보와 하나님의 형상의 전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役事)에 대한 저자의 요점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 장의 다른 정보들이 은혜에 대한 저자의 강조를 지지한다. 우리는 이 개인들의 장수(長壽)가 확정적인 증거라고 제한한다. 거의 천년에 걸친 생애들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은, 그것들은 인류의 셋 조상들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경의 나중의 책들, 특히 신명기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수(신 4:25; 5:16, 33; 6:2; 11:9; 22:7; 30:20)의 약속을 제시한다.²³⁾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창세기 5장 1-3절을 그 문맥에서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많은 학자들²⁴⁾의 주장을 수용하고 보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폴 샌즈(Paul Sands)도 창세기 1장 26-28절에 대한 해석 중 구약학자들의 일반적인 합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항들²⁵⁾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⁶⁾ 샌즈는 이어서, 신약은 구약과는 확실히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상실되었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23)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255-256. 볼드체는 논자가 부가한 것이다.

24) 예를 들면, Alford, 9, 27; John Skinn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2nd ed., ICC (Edinburgh: T. & T. Clark Ltd., 1930), 129-130; Cassuto, 275; von Rad, 70-71; Porteous, “Image of God”, 682-683; Westermann, 148; Wenham, 127;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161-162; 김수홍, 『창세기 주해』(서울: 언약, 2014), 118-119.

25) Sands, “The *Imago Dei* as Vocation”, 29-30.

26) 윗글, 30.

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하나의 견해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²⁷⁾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여부에 있어서 구약의 증언은 과연 참으로 신약의 증언과 다른 것일까?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창세기 5장 1, 3절에서 히브리어 명사 “형상”과 “모양”이 만드는 절묘한 교차대구는, 창세기 5장 1, 3절이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연속성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잃어버렸음(=불연속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²⁸⁾는 점(=연속성)이 바로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다.²⁹⁾ 그 불연

27) 윌킨, 31. 존 킬너(John F. Kilner)는 자신의 논문 “Humanity in God’s Image”, 601-17에서 신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음을 암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까지 한다.

28) 참조, Leupold, 235; Keil and Delitzsch, 64, 124; John J. Davies, *Paradise to Prison: Studies in Genesi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5), 81; Henri Blocher, *In the Beginning*, trans. David G. Prest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94; Olsen, 29-33; Collins, 176 n. 73, 198, 276. 창세기 9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9절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올슨(Olsen)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형상 중 어떤 것이 얼마만큼 잃어버린바 되었으며 부패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 미묘한 구별이 수 세기에 걸쳐 신학자들의 마음을 차지했다”(30). 이 주제에 대한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Phillip Taylor, “Man: His Image and Dominion”, Th.D. Dissertation (Grace Theological Seminary, 1974)을 참조하라.

29) 20세기 신학자들은 성경이 존재론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유사적 견해(resemblance view) 또는 존재론적 견해(ontological view)보다는 대리적 견해(representative view)나 관계적 견해(relational view)가 주도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도적인 관계적 견해의 선두에는 칼 바르트(Karl Barth)가 있었고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이 지지했으며, 대리적 해석의 출발점에는 H. 헨(H. Hehn)이 있었고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가 지지했다. 그러나 창 1장 26-27절이 인간의 본성보다는 하나님의 행위 또는 사건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바르트나 베스터만에 대해서 고든 웬햄(Gordon Wenham)과 케네스 매튜즈(Kenneth A. Mathews)는 과정은 ‘형상’이 아니며 창세기 5장 3절은 ‘형상’이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Mathews, 168 n. 202). 그래서 결과적으로 웬햄과 매튜즈는 대변적 해석을 강하게 지지하게 되었다(Wenham, 31-32; Mathews, 170). 그러나 대리적 해석이나 관계적 해석 둘 다 나훔 사르나(Nahum M. Sarna)가 자신의 저서 *Understanding Genesis: The Heritage of Biblical Israel* (New York: Schocken Books Inc., 1966)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구절은 어려운 것이며, 그 기원과 정확한 의미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못했다.”(15쪽)고 언급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맥[창세기 1장 26-27절에 이어서 나오는 28절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의 개념은, 불가피하게 그 의미의 범위 내에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고 지상에서의 그의 과업 완수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과 품성의 선물들, 즉 지성, 자유의지, 자의식, 다른 것

속성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5장 3절과 그 후에 이어서 전개되는 창세기 5장의 내용 자체이다.

아담의 족보에 대한 표제어인 창세기 5장 1상절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5장 1중-2절는 비록 간략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창세기 5장의 서론인데,³⁰⁾ 그 히브리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펼치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בְּיוֹם בְּרָא אֱלֹהִים אָדָם	창세기 5장 1중절
בְּדִמּוֹת אֱלֹהִים עָשָׂה אֹתוֹ	창세기 5장 1하절
זָכָר וּנְקֵבָה בְּרָאָם	창세기 5장 2상절
וַיְבָרֶךְ אֹתָם וַיִּקְרָא אֶת־שְׁמֵם אָדָם	창세기 5장 2중절
וַיְבָרָאם	창세기 5장 2하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창 5:1중)와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창 5:2하)가 시작과 끝에서 교차대구적으로 상응하고,³¹⁾ 그 구조의 중심에 창세기 1장에서 유일하게 인용된 것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창5:2상)는 기록이 의미심장하게 위치하고 있다.³²⁾ 그것은 창세기 5장의 주제가 근본적으로 생식(procreation)/번식(fertility)을 지향하고 있음과 창세기 5장 2중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창세기 1장 27상절과 마찬가지로 생식/번식의

들의 존재에 관한 의식, 양심, 책임, 그리고 자기통제와 같은 것들을 포함해야만 한다”(15-16쪽).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견해들이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관련적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Collins, 67; Nahum 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2).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Westermann, 147-158; Collins, 61-67; Mathews, 164-172를 참조하라.

30) Kessler and Deurloo, 72.

31) 참조, Cassuto, 274; Kessler and Deurloo, 73.

32) Kessler and Deurloo, 73.

축복을 말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³³⁾ 창세기 1장에서 이름과 기능들이 부여되었을 때 피조 세계가 인간을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을 때, 더욱이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일컫는 칭호일 때, 아담이 하게 될 역할이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5장 3절에서 언급되어 있다.³⁴⁾ “아담은 ...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이를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아담의 바로 이 생식과 작명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 자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던 것(창 5:1중-2)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³⁵⁾ 그러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 창세기 5장 3절이기도 한데, 창세기 5장 1중-2절(참조, 창 1:26-28상)이 교차대구적 상응을 그 시작과 끝에서 함으로써 독립적인 단락의 경계를 정하는 듯이 보이는 것에서 이미 암시된 사실이다. 그 불연속성은, 창세기 5장 3절에서 언급되는 “셋”이라는 이름이 가인에 의한 아벨의 죽음과 관련하여 작명되었기에(창 4:25) 죽음을 암시하는 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초래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죽음’³⁶⁾인데,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 죽었더라”(창 5:4-5)는 기록으로 선명해지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셋(창 5:8)과 그의 모든 자손들의 죽음에서 선명해졌다. 아담의 범죄가 이미 아벨에게 죽음의 질은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질은 그림자는 마침내 아담 자신에게도 드리웠고 그의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자손들에게도 드리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33) 윗글, 73-74; 참조, Cassuto, 275; Wenham, 126.

34) 참조, Kessler and Deurloo, 73-74.

35) 참조, 윗글, 74.

36)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한 범죄한 인간도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듯 창세기 3장 12절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불사불멸의 생명은 창세기 3장 16-17절이 분명하게 언급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조건에서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음과는 무관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죽음은 비극적인 역설이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부조(父祖)들의 장수(長壽)의 기록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학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³⁷⁾ 오히려 그 기록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불사불멸의 삶,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복락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⁸⁾ 창세기 5장 1-3절에 있는 창세기 1장 26-28절의 반향은 인간의 영광스러운 원상태 및 인간에게 펼쳐질 수 있었던 찬란한 역사를 범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 및 인간에게 펼쳐진 어두운 역사와 현저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의도³⁹⁾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5장에서 “죽었더라”고 반복해서 올리는 그 엄숙하고 비통한 음조는 창세기 5장의 기조음이다.⁴⁰⁾ 그러나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므로 그 존귀한 특권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창세기 5장의 장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장수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창세기 5장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는 출산과 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다.

“죽었더라”는 엄숙한 기록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보다 풍부한 후손들에서 보편시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상쇄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

37) 참조, Leupold, 233-234; Davies, 105-106.

38) Keil and Delitzsch, 123. 폰 라트(Gerhard von Rad)는, 창 5장은 P 문서에는 없고 J 문서에 있는 타락 이야기와 다소 같은 어떤 것. 즉 노아 홍수 이전의 부조들의 놀라운 생명력과 점차 감소하는 수명에 대한 증언이 있고 언급했다(von Rad, 69-70).

39) Leupold, 231-233, 235; 참조, Keil and Delitzsch, 64, 124.

40) 참조, John J. Davis, 104-105: “창세기 5장을 읽으면 공동묘지 사이를 걸을 때처럼 심령이 엄숙해진다. ... 창세기 5장은 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는 사탄의 참람된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보인다. 아담은 선악과는 먹는 순간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즉각적인 결과였으나 창세기 5장 5절에 의하면 그는 ‘죽었’다. 이 장에 나오는 다른 7명의 부조들도 똑같이 ‘죽었더라’고 언급되어 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옹호되었다.”

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의 서광(曙光)을 비추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창세기의 보다 더 넓은 문맥에서 볼 때, 창세기 5장에서는 결국 노아로 이어지는 연대기 족보(chronogenealogy)⁴⁴⁾가 나오고(창 5:3-32, A), 창세기 6장에서는 종말적인 배도의 상황인, 노아 홍수 이전의 도덕적 부패상이 노아와 대조적으로 언급되며(창 6:1-12, B), 그 후 창세기 6장 13절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C).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창세기 11장에서는 종말론적 배도의 상황인 바벨탑/성 이야기(창 11:1-9, B)가 언급되고, 그 후 결국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족보(창 11:10-32, A')가 나오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C'). 그리하여 비록 불완전한 교차대구 구조(A:B:C:: B':A':C')이기는 하지만, 이 구조는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노아가, 타락한 “옛 세상”⁴⁵⁾으로부터 ‘새 세상’의 역사를 여는 남은 자였듯이(창 7:23하), 아브라함도 반역적인 열국으로부터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는 남은 자였다는 것이다(참조, 창 12:1-5).

게다가 창세기 5장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요소는 노아의 세 아들(셈, 함, 야벳)을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5장 32절이, 데라의 세 아들(아

44) 다방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들은 연대기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족보로 간주되고 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대와 노아 홍수 이후의 세대를 이어줌으로써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까지 이르는 이 족보들은 단순히 부자관계나 혈연관계만을 밝혀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족보(genealogy)가 결코 아니다. 이 족보는 “P1이 x세에 P2를 낳았고, P1이 P2를 낳은 후 y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P1이 z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는 거의 일관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연대기적 수치 자료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의 역사에서 연대가 공인된 어느 한 지점을 우리가 찾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 창조 주간에 위치한 연대까지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연대기 족보(chronogenealogy)라고 일컬어진다. 참조, 하계상,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소고”,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1(2010): 146-147; KyeSang Ha, “The Age of the Earth: The Biblical and Historical Evidence”, *Journal of Global Christian Worldview Society* 6 (August, 2012): 63-89.

45) 베드로후서 2:5.

브람, 나홀, 하란)을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11장 26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마치 노아가 500세 때 세쌍둥이(셈, 함, 야벳)를 낳은 듯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창 5:32), 데라도 70세에 세쌍둥이(아브람함, 나홀, 하란)을 낳은 듯이 언급되어 있다(창 11:26). 함은 형제들 중 막내였고(창 9:24), 셈과 야벳 중 야벳이 형이고 장자일 가능성이 높으며,⁴⁶⁾ 아브라함이 형제들 중 막내였고(창 11:26, 32; 12:4),⁴⁷⁾ 나홀과 하란 중 하란이 형이요 장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창 11:26, 29)⁴⁸⁾에도 불구하고 셈이 마치 장자인 것처럼 먼저 언급되어 있듯이, 아브람도 마치 장자인 것처럼 먼저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창세기 5장 32절과 창세기 11장 26절은 상당히 저의(底意)가 있는 의도적인 기록들로서 그 유사성은 깊은 함의(含意)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차대구 구조 및 기록의 유사성으로 인해 노아의 세 아들(셈, 함, 야벳)에 대한 창세기 5장 32절의 기록은, 셈을 통해서 창세기 11장 10-26절의 연대기 족보와 연결되어 노아 홍수 이전(“옛 세상”)의 역사를 노아 홍수 이후(“새 세상”)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아브라함과 연결 시킴으로써(참조, 창 11:26-12:5) 새 민족,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창세기(Genesis)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기원’ (genesis)⁴⁹⁾, 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46) 참조, 창세기 10장 1, 2, 6, 21절; 11장 10절.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야벳의 후손들이 먼저 언급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창세기 11장 10절이 그 의문을 푸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은 홍수 후 제2년에 100세였으므로, 그 때 노아의 나이는 약 602세였을 것이다. 만약 셈이 장자라면, 셈의 출생 때 노아의 나이는 창세기 5:32에서 500세가 아니라 502세여야 한다. 따라서 야벳이 노아의 500번째 해에 태어난 장자이며, 셈과 함이 차례대로 그 뒤를 이은 것이 분명하다.

47) 참조, 사도행전 7장 4절. 창세기 11장 32절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고 언급하고, 사도행전 7장 4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있었다고 말하며,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여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아브라함 출생 시에 데라는 적어도 13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은 데라가 7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필시 막내였을 것이다.

48) 창세기 11장 29절은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란이 나홀의 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49) Kessler and Deurloo, 74.

Dei)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도구인 이스라엘의 생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근간(根幹)이 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창세기 5장 1, 3절에 대한 한글 성경 역본들의 번역에서 수정되어야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창세기 5장 1-3절의 기능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세 번 사용된 바라(**בָּרָא**, “창조하다”)를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은 번역에 세 번 다 반영해야 할 것이며, 『공동번역 개정』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5장 1-2절에서 “지어내다”보다는 “창조하다”로 번역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창세기 1장 27절에서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 그리고 『표준』과 『새번역』은 “하나님이 …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식으로 번역함으로써 『공동번역 개정』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와 “남자와 여자로”의 평행대구를 살려야 할 것이다.

셋째, 창세기 1장 26상, 27절에서 첼렘(**צֶלֶם**, “형상”)이 세 번 다 전치사 베크(**בְּ**, “in”)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 그리고 『표준』과 『새번역』 모두 창세기 1:26상에서는 “형상을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형상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으므로 모두 “형상대로”로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할 것이다.

넷째, 창세기 1장 26상절에서 더무트(**דְמוּת**, “모양”)는 전치사 키(**כִּי**, “after, according to”)를 취하고 있으므로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 그리고 『표준』과 『새번역』 모두 “모양대로”보다는 오히려 “모양을 따라서”라고 번역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앞의 “형상을

따라서”를 “형상대로”라고 일관성 있게 번역할 경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가 되어 단조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표준』과 『새번역』은 창세기 5장 2절에서 바라(אֲרָבָה)의 수동형(Niphal)을 그대로 번역함으로써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그 기본형(Qal)과의 대조를 통한 문학적인 미묘한 변이를 반영시켜야 할 것이며, 『공동번역개정』은 창세기 5장 2절의 그 수동형을 번역에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더무트(דְמוּת)가 사용되었으므로 『개역개정』이 『개역한글판』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수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의 “지으시되”는 “만드시되”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으시되”라는 번역은, 창세기 2장 7, 8절에서 “짓다”라고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 그리고 『표준』과 『새번역』이 오역한 야차르(יָצַר, “빚다”)를 연상시키고,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의 번역에 일관성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일곱째, 창세기 5장 1절에서 『표준』과 『새번역』은 히브리 본문의 더무트(דְמוּת)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여덟째, 창세기 5장 3절에서 『표준』과 『새번역』의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이라고 한 번역은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고쳐야 히브리 본문의 어순에 맞고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도 일관성 있는 번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3절은 창세기 1장 26상절과 비교할 때 명사의 순서가 바뀌어 더무트(דְמוּת, “모양”) 다음에 쉘렘(דְלָמ, “형상”)이 나오지만 전치사의 순서는 동일하여 베히(בְּ) 다음에 커(כִּי)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식으로 번역해야 창세기 1장 26상절의 번역과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창세기 5장 1-3절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창세기 5장 1-3절에서 켈렘(קַלֶּם)과 더무트(דְּמוּת)라는 두 명사가 이루고 있는 독특한 구조, 베히(בְּ)와 커(כִּי)라는 두 전치사가 그 명사들과 이루는 결합을 통해 보여주는 절묘한 구조, 그리고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창세기 5장 1-2절에서 바라(בְּרָא)와 아싸(אֲצַף)라는 두 동사가 이루고 있는 특이한 구조를 무엇보다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구조들은, 창세기 5장 1-3절이 단순히 창세기 1장 26-28절의 반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28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째, 히브리 본문은 그 형식과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동등성 번역의 원리’와 ‘형식 일치 번역의 원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창세기 1장 26상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로,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로 번역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3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이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로 번역했다.

열한째,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창세기 5장 1, 3절에서 켈렘(קַלֶּם)과 더무트(דְּמוּת)가 만드는 절묘한 교차대구는, 창세기 5장 1, 3절이 창세기 1장 26상, 27절과 갖는 연속성 및 불연속성을 암시하고 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거의 상실되었음(즉, 불연속성)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즉, 연속성)이 바로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인데, 그 불연속성의 근거는 창세기 5장 3절과 그 후에 이어서 기록된 창세기 5장의 나머지 내용 자체이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보다 더 넓은 문맥에서 볼 때 드러나는 창세기 5장의 중요성인데, 노아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과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이 보여주는 그 주제와 구조에 있어서의 절묘한 상응(相應) 및 창세기 5장 32절과 창세기 11장 26절의 의미심장한 유사성이 나타내고 있다. 즉, 노아가, 타락한 “옛 세상”으로부터 새 세상의 역사를 여는 남은 자이듯이(창 7:23하), 아브라함도 반역적인 열국으로부터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는 남은 자라는 것이다(참조, 창 12:1, 4-5). 특히 창세기 5장 32절의 기록은 셈을 통해 창세기 11장 10-26절의 연대기 족보와 연결되어,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 즉 “옛 세상”의 역사가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 즉 ‘새 세상’의 역사와 연결되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연결됨으로써(참조, 창 11:26-12:5) 새 민족의 역사, 즉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창세기(Genesis)의 주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도구가 되는 이스라엘의 기원(genesis)’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근간(根幹)이 된다.

6. 참고문헌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Biblic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stiftung, 1977.
 김수홍, 『창세기 주해』, 서울: 언약, 2014.

- 김정우,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2003년 1월), 7-40.
- _____. “히브리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19 (2006년 10월), 7-28.
- _____.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제 2부: 실례들”, 『성경원문연구』 20(2007년 4월), 7-29.
- 김진규, “잠언에 나타난 ‘마스킬’의 번역의 문제”, 『구약논단』 43집(2012년 3월), 60-81.
- 남대극, “창세기 1장의 번역과 의미”, 『구약논단』 2집(1996년 12월), 7-23.
- 문희석, 『창조신학』, 서울: 보이스사, 1976.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소형근, “히브리어 ‘폐하’(פֶּה)에 대한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 자료들 연구”, 『구약논단』 50집(2013년 12월), 266-289.
- 손석태, 『창세기 강의』, 성경강의 시리즈. 서울: ESP, 1993.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연구』 28(2011년 4월), 170-203.
- 하계상,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소고”,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1(2010): 143-163.
- _____.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아롬(אֲרוֹם), 아롬(אֲרוֹם), 에롬(עֲרוֹם): 그 의미들과 번역들, 그리고 그 절묘한 언어유희의 의도”, 『구약논단』 50집(2013년 12월), 144-171.
- Alford, Henry., *The Book of Genesis and Part of the Book of Exodus: A Revised Version, with Marginal References, and an Explanatory Commentary*, London: Alexander Strahan and Co., 1872, repr. Minneapolis, MN: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79.
- Blocher, Henri., *In the Beginning*, trans. David G. Preston, Downers

-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 Cassuto, Umber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 From Adam to Noah, Genesis 1-6:8*, trans. Israel Abraham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1.
- Collins, C. John.,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mpany, 2006.
- Crouch, C. L., “Genesis 1:26-7 as a Statement of Humanity’s Divine Parentag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NS 61/1 (April 2010): 1-15.
- Davies, John J., *Paradise to Prison: Studies in Genesi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5.
- Feinberg, Charles., “The Image of God”, *Bibliotheca Sacra* 129 (1972): 235-246.
- Fox, Everett., *In the Beginning: A New English Rendition of the Book of Genesis, Translated with Commentary and Notes*, New York, NY: Schocken Books, 1983.
- Fretheim, Terence E., “Image of God”,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3, 18-21.
- Ha, KyeSang., “The Age of the Earth: The Biblical and Historical Evidence”, *Journal of Global Christian Worldview Society* 6 (August, 2012): 63-89.
-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2.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 Jónsson, Gunnlaugur A., *The Image of God: Genesis 1:26-28 in a Century*

- of Old Testament Research*, Coniectanea Biblica, Old Testament Series 26, Lund: Almqvist & Wiksell, 1988.
- Keil, C. F., and Delitzsch, F., *The Pentateuch*, trans. James Mart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1, repr.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 Co., 1983.
- Keiser, Thomas A., “The Divine Plural: A Literary-Contextual Argument for Plurality in the Godhead”, *Journal for the Society of the Old Testament* 34/2 (2009): 131-146.
- Kessler, Martin., and Deurloo, Karel., *A Commentary on Genesis: The Book of Beginnings*, Mahwah, NJ: Paulist Press, 2004.
- Kilner, John F., “Humanity in God’s Image: Is the Image Really Damaged?”,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3/3 (September 2010): 601-17.
- Leupold, Herbert Carl., *Exposition of Genesis: Volume I, Chapters 1-19*,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6, copyright by The Wartburg Press, 1942.
- Mathews, Kenneth A., *Genesis 1-11*,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s. 1A & 1B,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 Olsen, Viggo Norskov., *Man, the Image of God: The Divine Design—the Human Distortion*,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 Association, 1988.
- Porteous, N. W., “Image of Go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2, 682-685.
- Prenter, Regin., *Creation and Redemption*, trans. Theodor I. Jensen, Philadelphia, PN: Fortress Press, 1967.
- Sands, Paul., “The Imago Dei as Vocation”, *The Evangelical Quarterly*

- 82/1 (2010): 28-41.
- Sarna, Nahum M., *Understanding Genesis: The Heritage of Biblical Israel*, New York: Schocken Books Inc., 1966.
- _____.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kinner, Joh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2nd ed.,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Ltd., 1930.
- Stendebach, F. J., “שֵׁלֶם שְׁלֵם”,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12, 386-396.
- Taylor, Phillip., “Man: His Image and Dominion”, Th.D. Dissertation, Grace Theological Seminary, 1974.
- Trible, Phyllis.,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78.
- Van Leeuwen, Raymond C., “Form, Imag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4, 643-648.
- Von Rad, Gerhard., *Genesis: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rev. ed., Philadelphia, PN: Westminster Press, 1973.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
-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MN: Augsburg Pub. House, 1984.
- Wildberger, H., “דְּמִבּוּ לְהִיבּוּ” *dmh to be like*”,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1, 1080-1085.

검색어

하나님의 형상/모양

반향

연속성과 불연속성

번역의 일관성

창세기 5:1-3의 기능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Gen 5:1-3 and its Function

KyeSang Ha,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College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Genesis 5:1-3 is, for the most part, essentially an echo of Genesis 1:26-28. As if never perceiving it, however, the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undesirably render Genesis 5:1-3, and there is no consistency in the translations. So this paper first aims to correct the undesirable renderings in the Korean versions, to give consistency to the translations, and also to correct the renderings of Genesis 1:26a, 27 in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n light of the Hebrew text in the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I proceeded with this study specifically by paying attention to the translation of צֶלֶם (“image”) and דְמוּת (“likeness”), בְּ (“in”) and אַחֲרַיִם (“after, according to”), and עָשָׂה (“make”) and בָּרָא (“create”), and also to the consistency of their respective translations. The second goal of this study is to perceive

www.kci.go.kr

the function of Genesis 5:1-3 in consideration of it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with Genesis 1:26a, 27. I proceeded with this research from a synchronic/literary perspective, with Genesis 1:26a, 27 and 5:1-3 as the texts in their final form, and a detailed exegesis of the texts was excluded.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pointed out up to eight kinds of unsatisfactory renderings in Genesis 1:26a, 27 and 5:1-3 occurring in six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which are related to the translation of צָלַם and הָמוּת, בָּ and בָּ, and עָשָׂה and בָּרָא, to the consistency in translations, and to the literary aspects of parallelism and chiasm.

A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function of Genesis 5:1-3, both perceiving its close relationship with Genesis 1:26a, 27 and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are needed, as is clearly shown in the exquisite structures made by צָלַם and הָמוּת, by בָּ and בָּ coupled with צָלַם and הָמוּת, and by עָשָׂה and בָּרָא. The chiasmic structure that צָלַם and הָמוּת in Genesis 1:26a, 27 and 5:1, 3 make, however, hints at the latter'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with the former. The discontinuity is that the image of God is almost lost through the Fall, and the continuity is that the trace of the image still remains in humans, and the basis for the discontinuity lies in Genesis 5:3 and the following verses of Genesis 5. Not only God's creating mankind male and female, but also His blessing them, points to the basic theme of Genesis 5 as procreation, because the calling of Adam as "their name" (5:2) connotes the role of Adam to beget "in his likeness, according to his image" and to call "his name Seth" (5:3). Adam's activities of procreation and naming are in the same vein with God's activities of making mankind "in the likeness of God" when He created them (5:1b-2). In spite of this continuity, discontinuity also appears in Genesis 5:3, which is already hinted at in that Genesis 5:1b-2 seems to delimit itself as

an independent pericope by the chiasmic correspondence of its beginning to its end. As the name “Seth” itself in Genesis 5:3 hints at death because of his being named in relation to Abel’s death by Cain, the discontinuity is the ‘death of mankind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s the consequence of Adam’s Fall. The discontinuity begins to be made clear in the record of Genesis 5 that “Adam ... died” (5:4-5) and is made very clear in the death of his son Seth (5:8) and of all his succeeding descendants.

Last but not least is the significance of Genesis 5, which is revealed in the following broader context of Genesis—more specifically in the structural and thematic correspondence of the Genesis record of Noah with that of Abraham, and the similarity of Genesis 5:32 to 11:26. Just as Noah is the remnant (7:23b) who opens the history of the ‘New World,’ having come from the corrupt ‘Old World,’ so Abraham is the remnant who opens the history of the new people Israel (cf. 12:1-5), having come from the rebellious nations. Especially Genesis 5:32 which is connected through Shem with the chronogenealogy of Genesis 11:10-26, links the antediluvian history to the postdiluvian history, and ultimately to Abraham (cf. 11:26-12:5), and thus provides the basis on which the history of the new people Israel can be unfolded. Therefore, the chronogenealogy of Genesis 5 is a foundation for the conclusion that the theme of Genesis is the genesis of Israel, an instrument of God in His economy of redemption, to restore the *imago Dei* to mankind.

Key words

The Image/Likeness of God

Echo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Consistency of Translation

The Function of Genesis 5:1-3

- 투고일: 2015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5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06일